신안 버스완전공영제 성공사례, 전국서 벤치마킹 쇄도

33개 노선 · 22대에서 현재 117개 노선 공영버스 65대 운영

주민의견 반영 · 자체 조사결과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신안군은 2007년 임자도 버스공영제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33개 노선, 22대에서 현재 117개 노선에 공영버스 65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및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상 교통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67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영버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선을 결정하는 주민버스로, 자체 조사 결과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의 버스공영제 성공사례는지난해 전국 버스 총파업 위기속에서도 수익·비수익 노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일 대당 운송원가가 179,330원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54%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요금 또한 65세 이상 및 학생,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전체 이용객의 83%가 무상교통 제공을 받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 버스공영제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화 문의 및 방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최근 신안군을 방문한 강원도 정성군에서 금년 6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오는 11월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화성시에서 버스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 최초로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이러한 대중교통 정책 성공사례들을 타 지자체에 널리 전파하면서 전국으로 버스공영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함평군, 전국 최초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 입주

총 136세대 204명 이재민…긴급재난지원금 · 의연금 지원

이상익 군수가 7일 임시주택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모습

함평군이 집중호우로 터전을 잃은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임시조립주택을 설치·지원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폭우로 함평지역 내 도로 75개소와 하천 47개소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되고 총 204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유시설에 대해 긴급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총 136세대 204명의 이재민에게 각각 긴급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지원했다.

군은 특히 주택전파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 2개 가구(4명)에 대해서는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조립주택 2개동을 이번에 긴급 설치했다.

사업은 지난달 21일 부지선정을 시작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전기·수도·하수도 설치 등의 행정절차까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됐다.

특히 조립주택을 지역 내 조립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설치부지에 안착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부지선정부터 입주까지 채 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현재 수해 이재민 2개 가구는 지난 6일부터 정상적으로 입주한 상태다.

함평=김광춘 기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목포시,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위해 올해 한시적 시행

목포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피해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10일 공포 · 시행했다.

시는 9월 4일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약 4억5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약 1억3천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교육

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9월 4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9월 20일 24시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0일부터 전라남도지사가 행정명령한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와 300인 미만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대상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되고 9월 8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폐건전지 · 우유팩 가져오면 바꿔드려요"

영암군, 새건전지 · 종량제봉투 교환

영암군은 다 쓴 건전지와 우유팩을 새건전지 ·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수은, 망간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건전지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이 쉽지 않은 우유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폐건전지·우유팩의 교환을 진행 중에 있다. 영암군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폐건전지는 10개당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해주고, 종이팩은 물로 헹군 뒤 건조하여 읍면사무소로 가져오면 우유팩 200㎖ 40개, 500㎖ 15개, 1천㎖는 7개당 종량제 봉투 20L 1개로 교환해준다.

영암군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폐건전지 2.5톤과 우유팩 6.5톤을 수거하였고 올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건전지 3톤, 우유팩 7.8톤 이상 수거를 목표로 하여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우유팩은 100% 외국에서 수입한 고가의 천연펄프로 만든 소중한 자원이고, 건전지는 방치하면 영암 곳곳에 중금속이 퍼져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깨끗한 영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영암을 지키기 위해 폐건전지와 우유팩 수거행사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추석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농공단지 · 쓰레기매립시설

목포시가 추석연휴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 감시 · 단속 활동에 나선다.

시는 주요 하천, 농공단지,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 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추석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